

화도진문화

HWADOJINCULTURE 2024 Vol.5



화도진문화원



배다리 현책방거리-2
(아르쉬옹지위에 먹과 수채, 38X28cm, 2023)

글 · 그림

백승기

이 작품은 인천 동구의 배다리 현책방거리를 담고 있다.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거리는 한때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였던 한미 서점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었다. ‘배다리’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 이곳이 바다였고, 배가 다니던 다리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수많은 현책방이 즐비했던 거리였으나, 현재는 몇몇 서점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 시간이 흐르면서 배다리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해 갤러리, 스튜디오, 다양한 공방, 작가들의 작업실 등이 들어서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특별한 매력을 더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의 골목을 그리는 어반스케쳐들이 많아지면서 주말마다 이곳을 찾아 그림을 그리거나 갤러리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창작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시 찾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장소,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있는 장소가 바로 배다리이다.

HWADOJINCULTURE
2024 Vol.5

화도지문화



- 02 인사글 조장환 화도진문화원장
- 04 축하글 김찬진 인천광역시동구청장
- 05 축하글 유옥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동구 이야기

- 08 동구 문학의 발자취를 찾아서
김연숙_수필가
- 12 동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21 128년의 역사를 품은 창영초, 그 빛나는 여정과 미래
차건호_인천창영초등학교장
- 26 동구 청년들의 따뜻한 쉼터,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동구청년21
이금남_유유기지동구청년21 센터장
- 30 인천 동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건강한 지구 만들기
이정덕_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34 세상에 없는 모두가 꿈꾸는 도시
오병규_창영종합사회복지관장
- 39 '여기는 인천향'의 단골소재는 동구 바다
유동현_전, 인천시립박물관장

문화원 포커스

- 44 '2024 화도진문화탐방', 파주일대를 돌아보고
최주혜_같이가치심리연구소 소장
- 48 우리 동네, 우리 동구 이야기
임해승_화도진문화원 사원

화도진문화원 이야기

- 54 화도진음악회
- 56 2024 역사문화프로그램
- 58 화도진 문화특강
- 59 배타고 동구바다 유람
- 60 제5회 배다리 헌(獻)책 축제
- 61 찾아가는 전통문화학교
- 62 화도진문화탐방
- 63 제35회 화도진축제 주관
- 64 동구 기록화 사업
- 65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목(木)표를 향해'
- 66 2024 동구바다 그리기 대회
- 68 요가베어와 함께하는 #뜨개명상
- 69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있는 동구 탐방길

동구의 사진

- 70 만석부두의 석양이 황금빛으로 물들다.
최용백_한국환경사진연구소 소장
- 72 회원가입안내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화도진문화원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동구 화도진문화원 제3대 원장으로 연임된
조장환입니다.

화도진문화원이 2016년 12월 설립 후 벌써 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하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24년 12월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지역 문화 발전의 계승 및 뿌리 깊은 동구의 역사를 부흥하기 위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동구의 문화, 예술의 중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술전시회, 공연,
강연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동구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화도진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는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힘이며, 문화를 존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밑바탕은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화도진문화원은 올해에도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각계 각층의 명사를
초빙하여 의미 있는 강의 시간을 마련한 ‘화도진 문화특강’ 동구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우리 전통의 문화를 알리며 배운 ‘찾아가는
전통문화학교’ 동구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었던
‘화도진 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제35회로 동구의 가장 오랜 축제이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도진 축제’를 동구청과 협력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동구 연안을 한 눈으로 바라보며 체험하고 즐긴 ‘배 타고 동구바다 유람’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서 개최한 ‘동구바다 그리기대회’ 올해는 공모전이 아닌 현장대회로 온 가족이 동구의 바다로 소풍을 나온 듯 대회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화도진문화원은 동구의 전통 깊은 문화와 가치 있는 역사를 지켜내고 계승하며 교육과 발간에 힘쓰고 동구 주민들과 늘 함께 하며 동구만의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 문화 복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구 문화의 산실이 되고, 동구민의 숭고한 열을 후손에 계승 발전시키는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화도진문화원장 **조장환**



화도진문화원,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김찬진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훌륭한 메신저로써 구민과 화도진문화원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화도진문화원 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소식지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조장환 화도진문화원장님을 비롯한 화도진문화원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도진문화원은 2016년 개원 이후 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동구사」와 함께 「화수동과 만석동의 기억」, 「동구의 시장, 그리고 사람들」, 「송림동, 사라진 풍경의 기록」 등의 향토지를 발간하고 「화도진 음악회」, 「화도진문화특강」, 「화도진 문화탐방」 사업 등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종료되고 각종 문화행사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화도진문화원 소식지의 발간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화도진문화원 소식지가 동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구 문화예술과 향토 문화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화도진문화원 3기가 출범하면서 보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어 명실공히 문화동구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함을 물론 다가올 제물포구 출범에 맞춰 융합과 화합의 문화원을 조성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화도진문화원 소식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화도진 문화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김찬진**



존경하는 화도진문화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인천 동구 주민 여러분께,
화도진문화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소식지는 단순한 간행물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귀중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화도진문화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도진문화원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지향하며,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창조적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화도진문화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소통과 공감으로 만나는 문화예술’과 ‘주민 친화적 문화예술
환경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통해 앞서가는 복합 문화예술을 구현하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은 지역사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제물포구 시대는 인천 동구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화도진문화원이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를 더욱
빛내어, 문화와 예술이 중심이 되는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화도진문화’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화도진문화원이 앞으로도 모든
세대와 함께하며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유옥분

HWADOJINCULTURE



동구 이야기

동구 문학의 발자취를 찾아서

동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128년의 역사를 품은 창영초, 그 빛나는 여정과 미래

동구 청년들의 따뜻한 쉼터,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동구청년21

인천 동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건강한 지구 만들기

세상에 없는 모두가 꿈꾸는 도시

‘여기는 인천항’의 단골소재는 동구 바다

동구 문학의 발자취를 찾아서

김연숙 수필가

첫눈이 내린 날이다.

세상은 온통 새하얀 수채화 물감을 풀어 놓은 듯하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동구문학을 결성했던 그 한 봄이었다.

개나리 진달래 꽃망울이 퍼지던 봄, 2002년 그날을 잊지 못한다.

동구문학 김연길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회원으로는 이희란, 이도영, 송세웅, 지은애, 노흥근, 김순례, 김미숙, 공문숙, 김철성, 김낙중, 오성배 등 결선 회원들과 소통해 왔다.

그 후 동구문학 고문이신 홍명희(93) 시인은 시 작품을 내어주셨다.



동구문학

또한, 동구문학 초대로 필자는 화도문학과 화도수필 회원들과 함께 동구문학에 오랜 세월 함께해 글을 냈다. 1995년도에 발행한 화도수필문학은 화도진도서관 향토자료실에 문학서적으로 보관되어 있다.

동구문학은 이십여 년 동안 문학의 정체성 확보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맨 처음 시인 여섯 명이 힘을 합쳐서 시작했고, 회원들은 소식지 형태로 펴냈고 그 후 책으로 엮어 제1집~제16집까지 나왔다. 열두 번째 동구문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동구이야기’가 이성진 선생과 이희환 박사가 함께한 특집 글이 실렸다.

배다리 쇠뿔고개는 서울을 향해가는 경인가도다. 배다리 지역에선 오래전부터 조선인 마을로 자리 잡았다. 우각리 지역은 성장과 요람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배다리 지역은 최초의 서구식 학교였다. 1892년 초등학교기간의 기원으로 영화학교 이화학당에 부속 여학교였다. 창영동에 위치한 영화학교 출신 김애리사와 김활란 박사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금곡리(배다리)에서 출생했고, 또한,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도 한 때는 배다리에서 살았다고 한다. 게다가 이옥녀 선생은 영화여자 보통학교를 나와 박창례와 함께 도원사 보각사 강당을 빌려 관서 학원 간판을 세웠다.

창영초등학교 출신 장창례는 동명초등학교를 설립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특히 그는 성냥공장과 간장공장, 그리고 정미소 등 노동자를 모아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영화배우 황정순은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가가 있는 배다리로 이사를 와 살았다. 황배우는 그 당시 영화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 선생은 강화가 고향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창영학교에 전학을 왔다. 최 작곡가

어머니는 배다리 중앙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했고, 최영섭 선생 누나 최영순 씨가 평소 필자가 운영한 가게로 와서 ‘나래혼수전문점’ 그 자리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종합예술회관 광장에 최영섭 작곡가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를 세일문화재단에 의해 세웠다.

배다리 영화여자 소학교에서 교사로 있던 안인애는 3.1운동이 일어났던 기미년 그 해엔 ‘독립선언문’ 전단을 넣어 잠시 영화학교로 운반했다. 이로 인해 3.1만세운동이 인천 최초로 창영초교에서 불꽃처럼 일어났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되는 그 날 인천 창영초교에 팔자의 자작시 ‘배다리 쇠뿔고개 거지지 않는 불꽃’ 시비가 세워졌다. 특히 만세운동에 공을 세운 안인애는 ‘인천애족부인회’를 발족한 계명학원 설립자고 또한, 이순화와 점자 창안하신 박두성 선생의 아내 김경내 (고 박정희화백의 어머니)도 함께 활동했다고 전했다.

배다리지킴이 지성소아과 고 김관철 박사는 2010년 세상을 떠났다. 1994년 월미잡지 창간 문학 잡지를 만들었다. 필자가 2000년 취재를 다닐 때 인천 라이온스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계셨다. 김 박사는 복지시설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해왔다. 2005년에는 의술 70년 회고록을 펴냈고, 막내 아들 김광진가수는 ‘마법의 성’을 부른 가수로 유명하다. 필자를 만나 막내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지극하고 푸근한 사랑 이야기를 나눈 그 날 잊지를 못한다. 막내 아들에게 준 정만큼, 우리 마을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따스한 손길로 보듬어준 박사님의 별세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극작가 함세덕 선생은 화평동(화평리) 태생이다. 인천부 화평리 455번지 유영호 박사가 운영해 온(평안병원) 근처에서 살았다. 1938년 신춘문예에서 동아일보에 작품



(고)박정희화백 유고 작품

‘동승’이 당선되었다. 함 선생은 늘 책방에서 점원이 되어 책과 가까이 지냈다. 책을 통해 지식의 갈증과 정신적 공허감을 충족했던 것이다. 미술평론가 이경성 선생 역시 화평동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한국 최초 미술 분야에 선구자였다. 화평동에서 평안병원을 운영해오신 유영호 박사는 인자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술로 베풀 또한 큰 분이셨다. 아내이신 박정희 화백은 유영호 박사가 돌아가신 후 평안병원 자리에 수채화의 집 간판을 걸고 제자들에게 그림 지도를 해왔다. TV KBS와 EBS 프로에 영상으로 박 화백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방영되었다. 게다가 화평동 평안병원에 계실 때 2011년 박정희할머니의 ‘행복한 육아일기’를 최초 펴냈다. 맹인복지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했다. IMF 있던 그 해 1997년 제17회 장애인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2024년 올해 박정희 화백 10주기 전시를 7월 신포동에서 했다. 그림 전시한 판매 금액 일부를 박두성 선생 기념사업에 내놓기도 했다. 또 조규봉 선생은 화수동에서 출생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탁월한 조각가로서의 재능을 보였다. 박화산 소설가는 화수동에서 제2의 고향으로 토박이로 사셨다. 글을 쓰시며 인하전기점을 직접 운영해왔다. 바쁜생활 속에서도 ‘사주팔자’ 책과, ‘딸 없는 사위’ 소설집도 펴냈다. 사주팔자 책은 지금도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어 꾸준히 팔리고 있다.

2015년에는 동구문학 제15호 ‘등신대이야기(하얀모탁)’ 단편소설을 집필했던 것이다. 올해 7월에 별안간 하늘나라로 떠나신 박화산 소설가 가슴 아픈 일이다. 그의 작품과 삶에 많은 이들에게 기억이 될 것이다.

동구문학을 위해 홍명희 시인이 멋진 시 ‘뿌리’ 작품을 끝까지 내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가 밀려왔다. 올해 93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글을 주셔서 동구 문화체육 센터에서 전시한 그날 예술제가 빛났다. 홍 시인은 지난날 인천에서 태어나 송림동에서 토박이로 살아왔다.

1956년 이화여대 국문과 졸업 1980년 제1집 ‘범의 서’를 출간 2010년까지 ‘대숲에서 묻는다’ 제10집까지 출간했다. 홍명희 시인은 배다리의 멘토로서, 문학의 상징적인 존재요, 영원한 동구문학의 기둥이시다. 배다리에서 문학생활 하던 날에 홍 시인의 시낭송하는 아름다운 목소리 잊을수 없다. ‘동구문학’ 이희란 시인은 1994년 ‘어깨 좀 푸시게’ 시집을 펴냈다. 1989년에 시조문학 천료되었다. 김철성 시인은 시집 ‘남원산방’ 외 다수를 펴냈다.

동구문학을 이십 여년간 이끌어 오고 지켜온 김연길 회장! 긴 세월 동구문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 드립니다.

김연길 회장 좋은시를 내 놓았다.

동구문학이 지나온 발자취 삶을 보고 느끼고 기록한다.

문학예술과 문화가 흐르는 인천의 향기 가득한 마을!

진한 동구의 역사를 기억하는 원도심 좁은 골목길!

경인철도 기공식을 한 최초였던 우리 마을에 동구문학의 꽃을 피웠다.

인천인이 사랑한 수많은 삶이 오롯이 서려 있는 ‘달동네 박물관’에서 진한 향수를 느낀다.

우리 마을에 배다리와 동구를 빛낸 인물과 동구문학의 발자취 오래도록 남아 길이 보전 되길 빈다. 동구 작품을 앞에 놓고 예술가들 정성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향기의 비애

동구문화회장 김 연 길

사람의 향기가 피어나면
등고산 따라 믿음이 싹트고
아름다운 생이 만들어 진다.

향기에 애환 담으면
숨 쉬는 만물 신세계로 시들게 한다
향기에는 두려움이 있다
행복한 마음
절망의 마음

방황하는 향기의 두 얼굴
그 속에서 피어난 비애도
상처 입은 꽃 피어나고
양심의 전도사로 희망을 본다.

뿌리

홍명희

씨앗이 있고
숨겨진 곳
심어진 곳
뜻이 있는 곳에서
뿌리도 생겼겠지
뿌리 혼자서는 아니다

뿌리가 있는 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간다
뿌리의 이야기는
우주의 이야기

동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만석 · 화수부두 해안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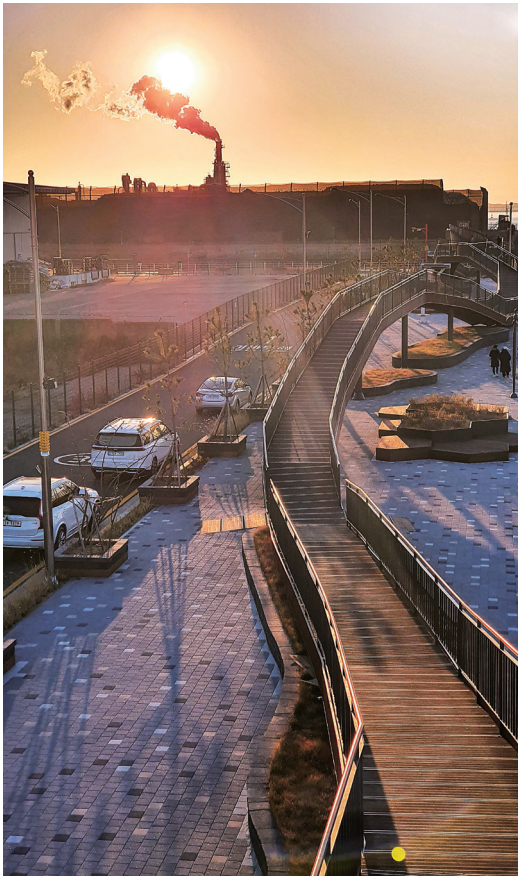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일몰을 앞둔 오후 5시, 서둘러 나선 길 끝에서 마주친
황해바다는 여전히 농도 짙은 핏을 품고 탁한 몸을 드러낸다.

위로는 중국에서 아래로는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대륙과 맞닿은 황해는 오랜 시간 광활한 바다를 휘돌아 드디어 인천과 조우한다. 그 황해가 만나는 인천의 부두가 바로 만석부두와 화수부두다. '만석 · 화수해안산책로' 표지판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즐비한 공장지대다.

근대화와 산업화 시대 인천의 바다는 하얀색 비치가 돋보이는 휴양지의 해변도, 낭만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도 거리가 멀었다. 일제 강점기엔 군수창 역할을,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물자를 받아 가공하는 공장 역할을 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기초 소재인 목재, 유리, 철강, 조선산업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졌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인천의 바다는 풍광이 없는 바다, 산책로가 없는 바다, 멋과 낭만이 없는 바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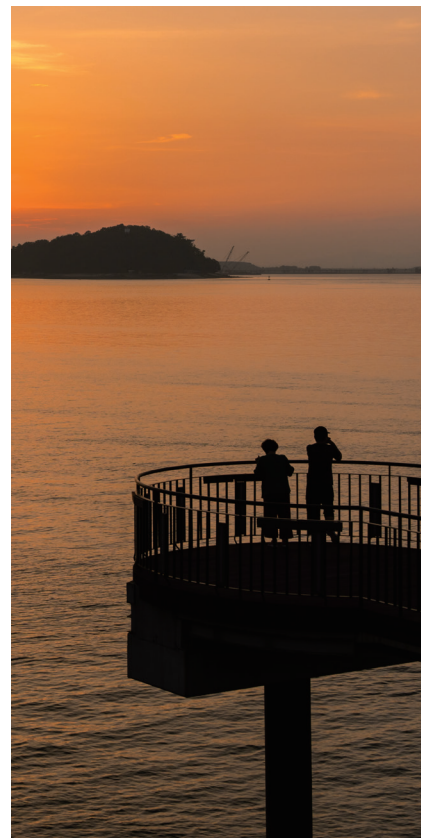




만석 · 화수 해안산책로는 인천의 바다 풍경을 단번에 바꿨다.

해안산책로를 따라가면 유리 난간이 있는 나선형의 계단을 따라 조성된 전망대, 바다 옆을 따라 걷게 만든 데크길, 바다를 향해 나가는 배의 선수를 재현한 전망대와 바다 위에 조성된 일몰 조망대까지 상상하지 못한 색다른 풍경들을 만난다.

인천항을 오가는 크고 작은 배들은 오랫동안 봐도 지루하지 않다. 해가 질 무렵이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낙조전망대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인다. 이윽고 커다란 해가 바다를 붉게 물들이면 아쉽게 넘어가는 검붉은 해를 보내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와~~.





파도 형상의 데크, 포토존, 전망대 등이 펼쳐진 4.72km의 구간

1980년대 동국제강, 일진전기 등의 공장과 해안초소 등이 들어서며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만석·화수부두는 해안을 따라 산책로와 다목적 공간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만석동 삼미물류 공장부지에서 화수동 화수부두까지 총 4.72km의 구간에 파도 형상의 '웨이브 데크', 포토존, 전망대 등이 설치됐다.

지금은 1·2단계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2028년 3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어야 해안산책로가 온전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1·2단계 구간과 달리 3단계 구간에는 조선소들이 배를 끌어 올려 작업을 하는 시설이 있어 그곳을 접해 해안산책로를 조성할 물리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적은 주말 저녁 화수부
두를 만나러 갔다.**

‘만석 · 화수 해안산책로’와 인접한 화수부두에는 준비하게 늘어선 그물이 마치 설치미술처럼 시선을 당긴다. 부두에 내리쬐는 저녁 햇살을 받는 그물은 노랗게 그 빛을 발한다. 그 색의 오염함이 가까이 갈수록 신비롭다. 섬세하게 한올 한올 그물을 다듬으며 만선을 기원하는 어부의 마음이 와 닿는다.





여러 채의 집을 한 줄로 이어 붙인 듯 보이는 오래된 구옥에는 색을 입히고 조명을 달았다. 서정적인 느낌이 와닿는 저녁 풍경이다. 부두로 나가니 갈매기가 어선들 위를 훨훨 날며 비어있는 앵글 한 부분을 부지런히 채운다.



어둠이 내리는 화수부두에는 부두를 밝히는 흐린 방법등과 뒤늦게 어선을 챙기는 몇몇 어부의 발길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운다. 좁은 수로를 타고 들어오는 황해의 짙은 물 위로 아직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검붉은 노을이 아쉽게 다가온다. 낮 보다 아름다운 동구의 밤이 아쉬운 여운을 남기고 서서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든다.





128년의 역사를 품은 창영초, 그 빛나는 여정과 미래

차건호 인천창영초등학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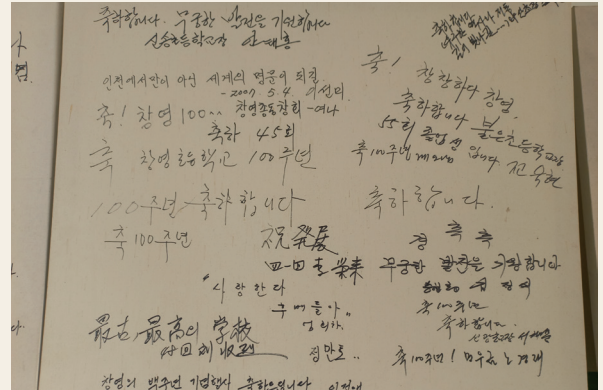
인천의 첫 공립소학교

제물포는 개항장으로서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특히 부산과 원산보다 한양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가 빠르게 개통되었다. 도로와 철도의 개통으로 활발한 물류 이동 뿐만 아니라,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근대 교육이 시작되는 중요한 기반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설립된 인천창영초등학교는 인천의 공립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 128년 동안 인천 교육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천창영초등학교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천교육역사바로세우기' 사업으로 잃어버렸던 11년의 역사를 되찾아 개교 100년이 넘는 학교를 대표하여 2024년 5월 '인천 100년 학교' 현판식을 성대하게 개최하기도 한 의미있는 한해였다.

무엇보다 창영초등학교가 일제가 세운 공립보통학교가 아니라, 고종 황제의 '소학교령'(1895년)에 따라 설립된 인천부공립소학교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다시금 드높일 수 있게 되었다. 1896년 1월 22일, 인천부와 대구부에 최초로 교사(인천부의 변영대)가 발령되었으며, 그는 단순히 교육자가 아닌 학교 설립의 초석을 다진 선구자로, 사립학교의 통합, 학교 부지 확보, 설립 기금 마련 등 학교를 세우는 데 온 열정을 쏟았던 인물로 우리 후세들이 다시 각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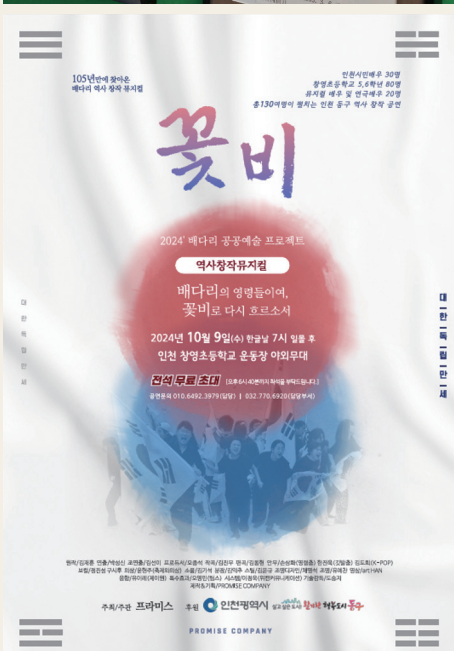
1905년 일제는 을사늑약으로 조선을 강제로 빼앗은 후 인천부공립 소학교를 인천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식민지배 정책에 맞는 하수인을 육성하는 노예교육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일제는 1906년 통감시기에 공포된 ‘보통학교령’이 조선의 근대교육의 시작이라고 왜곡하였다. 지금까지 1907년 5월 6일을 개교기념일로 알고 지내 왔지만 1896년 1월 22일로 바로잡고 새로운 학교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1월 22일은 겨울방학이라 학기중 어느 날을 재량휴업일로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인천 3.1 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

2024년 10월 9일 창영초 운동장에서 ‘꽃비’라는 제목의 뮤지컬 공연이 있었다. 동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5월부터 시민배우, 학생배우들이 연습을 시작했고 유난히 뜨거운 올해 폭염도 그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105년 전 1919년 3월, 바로 이 곳 창영초에서 경찰서와 연결된 전화선을 끊어 통신을 차단하는 것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김명진, 이만용, 박철준, 손창신 학생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였다.

8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창영초 운동장을 가득 메워 1919년 3월로 돌아가 대한독립의 벽참과 울분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내년 3·1절 기념식 날 다시 한번 꽃비가 창영초 운동장에 축축히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6호

과거 창영초의 본관이었던 구)교사를 마주하면 빨간 벽돌과 아치형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현관·복도·난간·기둥들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일제강점기시대 전반기 건축물이다. 1923년 건물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3칸씩 교실을 배치하여 2층으로 지었다. 학생들이 많아지자 1932년에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1칸씩 증축하여 지금은 왼쪽으로 5칸, 오른쪽으로 4칸에 이르렀다.

개항장 주변에는 오래된 학교들이 있었다. 축현초, 신흥초, 송림초, 중앙초와 같은 근대교육을 담당했던 학교들이 화재로 건물이 손실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는 옛 모습들은 그리움이 되었다.

하지만 창영초는 그 모습을 간직한 채 199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6호로 등재되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2006년까지 문화재인 본관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뒷 교사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담장을 함께 하고



있는 인천산업정보학교(개교 1994년)도 원래 창영초 부지이었기에 과거 창영초등학교가 얼마나 큰 학교였는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창영초등학교의 자랑으로 모두가 야구부를 손꼽지만 과거에는 축구부, 배구부도 있어서 상을 휩쓸었다 전해 들었다. 가끔 다른 학교 학생들, 시민들이 인천바로알기 문화해설사와 동행하여 학교를 둘러보고 간다. 지난 주에는 시애틀에서 온 본교 졸업생 부부가 문화재 앞에서 서성이다가 교장을 만나 문화재 안에 들어가는 행운을 맛보기도 했다. 그들은 과연 창영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그렸을지 사뭇 궁금해진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 찬란했던 개항장 및 일명, 동인천 시대가 있었다. 동인천역 시계탑, 대한서림 앞 공중전화박스는 지금의 휴대폰을 대신했다. 그곳에 가면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고 기다렸다. 지하상가나 길거리에 사람이 넘쳐나 어깨라도 부딪치는 날이면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신도시의 확장은 상대적으로 이곳을 원도심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다. 요즘도 가끔 동인천의 골목길과 시장을 거닐다 보면 20대 때의 설레임과 가슴 떨림이 느껴진다. 그 골목에서 이 광장에서 자유공원으로 신포동으로 흘러간 아득한 기억과 추억에 취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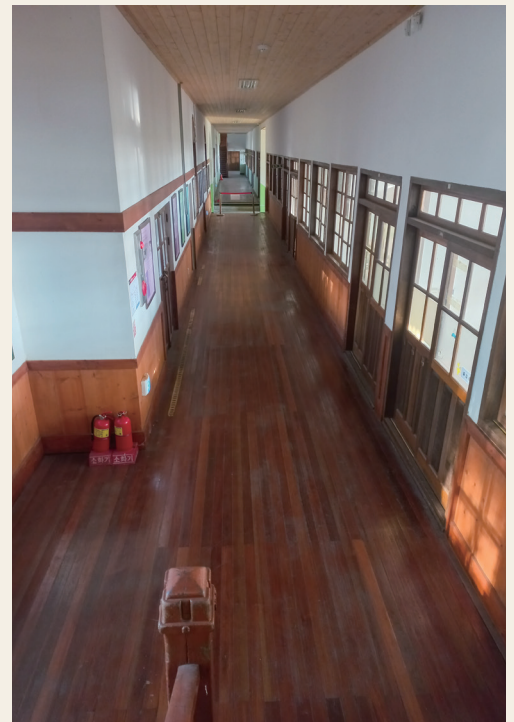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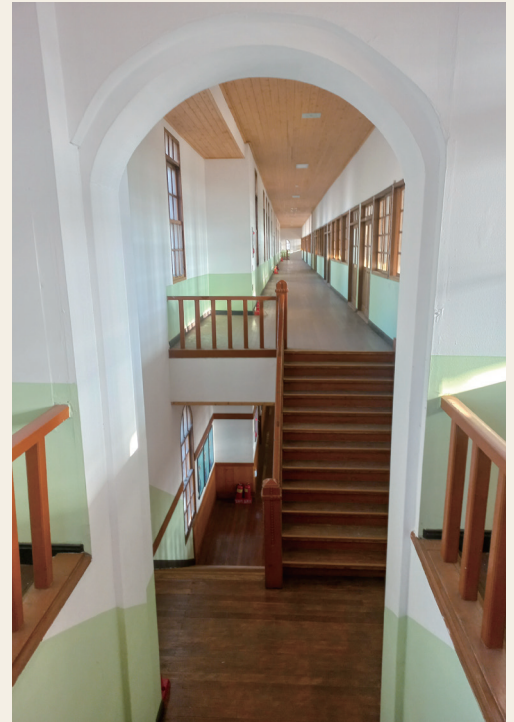
사람들이 안 보인다. 동인천역 서점을 가득 메웠던 학생들과 골목길에 웅기종기 모여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안 보인다.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진다. 창영초도 그런 시대적 흐름에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작년 9월 1일자로 창영초에 발령을 받고 감회가 새로웠다. 초, 중, 고, 대학 1학년 때까지 수도국산에서 자랐고, 금창동 109번지에 신혼집을 마련해 3년간 지낸 터라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 현재 창영초는 13학급(유치원 1학급 포함, 총 240명), 어느 소도시 시골의 학급 수, 학생 수와 같은 규모이다. 그나마 도원역 앞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100명 정도 등교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도관구역과 금송구역의 재개발이 완료되어 그 곳에 학교(가칭 금송초중학교)가 생기면 창영초는 몇 학급, 몇 명의 학생으로 역사를 이어갈지, 200년은 고사하고 150년은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하지만 변함없는 믿음이 있다. 창영초의 학급수가 줄고, 학생수가 줄어도 아이들의 웃음꽃 피는 교육활동은 이어지며 128년의 유구한 역사 또한 선배들에서 후배들로 이어짐을...

변영대 선생님이 고종황제의 임명장을 고이 품에 안고 창영초에 첫발을 디디던 1896년의 그 순간이 오늘 내가 발딛는 2024년과 하나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앞으로 아이들, 학부모님,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리라 다짐한다.

창영학교여, 영원하라!



동구 청년들의 따뜻한 쉼터,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동구청년21

이금남 유유기지동구청년21 센터장

안녕하세요! 저는 호이예요!

만들레 흠씨처럼 유유자적 떠다니며 제 자리를 찾고 있는 갓 졸업한 취준생이에요. 호기심도 많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걸 좋아하죠. 저처럼 진로를 찾아 헤매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들레 흠씨를 보신 적 있나요?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 자기만의 자리를 찾아 예쁜 꽃을 피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지금은 어디에 정착할지, 언제 정착할지 불안하지만... 이렇게 떠다니는 시간동안 여러 경험을 하면서 분명 제자리를 찾을 거라 믿고 있어요!

올해 특별히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이 운영을 맡아 우리 청년들의 위[WE]대함이 드러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유유자적 오픈마이크

진로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알차게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저처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특히 많았어요! 먼저 '일하는 나를 담은 노션 포트폴리오 만들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에이, 그냥 이력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니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정말 특별하게 보이더라고요!



동구청년리더

요즘 핫한 N잡러와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기본법' 강의도 있었어요. 저도 프리랜서는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계약서 쓸 때 꼭 체크해야 할 것들도 배우고, 부당한 계약에 대처하는 방법도 배웠답니다.

'입사클래스-면접편'은 정말 실전 같았어요! 면접관 앞에만 서면 긴장돼서 말도 더듬고 그랬는데, 스피치 트레이닝이랑 이미지메이킹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감이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청년에프터스쿨'이에요! 저처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라는 고민을 가진



동구청년리더



로컬크리에이터아카데미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다들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드론자격증 취득과정'에도 도전해봤어요! 드론의 기초 지식부터 실제 조종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죠. 하늘을 나는 민들레 훌씨처럼, 드론도 하늘을 날았답니다!

'동구르르 로컬스쿨'은 10주 동안의 특별한 여정이었어요. 우리 동구에 이렇게 특별한 이야깃거리가 많은 줄 몰랐거든요! 예비 로컬크리에이터들이랑 같이 지역의 숨은 이야기도 찾아보고, 새로운 콘텐츠도 만들어봤어요.

'지역 강의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 동구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른 청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유유자적 오픈마이크'가 열렸는데, 제가 MC를 맡아서 진행해봤어요. 우리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이 얼마나 실력자인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특별히 'The 쉼' 콘서트는 아직도 생생해요. 뮤지컬 배우, 첼리스트,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취업 준비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거든요.

'집담상담'은 저같이 고민 많은 청년들에게 딱이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힐링클래스'에서는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어요!

9월 청년의 날에는 이전과는 달리 청년들이 기획단으로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걱정됐는데, 다른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다 보니 정말 특별한 축제가 되었답니다.

'맛있는 쉼표'는 4월부터 시작해서 작은 상자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난 작물로 다 같이 밥도 해먹었거든요. 민들레 훌씨처럼 떠돌던 우리가 함께 모여 쉼표를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폭력 대화로 여는 써클 대화'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남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동구 청년 리더 발굴' 프로젝트는 저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줬어요. 민간활동가와 행정 분야의 청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언젠가는 동구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벌써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네요. 저처럼 방향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미 자신만의 꽃을 피우고 계신 분들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야기... 참 따뜻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유유기지 동구청년21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예쁜 꽃을 피울 거라 믿으면서, 이 여정을 즐겁게 함께해요! 그럼 전 이만 다음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호이 드림



맛있는 침표

인천 동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건강한 지구 만들기

이정덕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연결,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캠페인 행사 운영, 정보 제공 및 홍보

이러한 활동들은 동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주민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구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식목일 - 건강한 지구 만들기

식목일 행사 (건강한 지구 만들기)

식목일을 기념하여 건강한 지구 만들기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캠페인으로 인천 동구 지역 자원봉사자와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도진 공원과 솔빛 근린 공원에 홍매화 70주와 화살나무 1,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나무의 중요성과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이러한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플로깅 (노동자의 길 탐방 & 그림그리기)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으로 진행된 플로깅 활동(노동자의 길 탐방 및 그림 그리기)에서는 재능 중학생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플로깅 활동은 특히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 노동자의 길 플로깅

의미가 깊었습니다. 학생들은 무심코 버려진 담배꽂이가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학생들이 함께 빗물받이 좌우에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빗물받이에 버려지는 담배 꽂초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들었다”며,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행동이 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더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앞으로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대응 캠페인 플로깅 (노동자의 길 탐방 & 환경정화 활동)

이번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인 플로깅은 화도진문화원에서 기획한 '노동자의 길'과 자원봉사센터의 환경 정화 활동을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 사회의 동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구 해설사의 설명으로 진행된 노동자의 길 탐방에서는 그들의 삶과 역사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탐방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환경 플로깅 활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쓰레기를 줍고 자연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공원, 해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기 더하기 (연탄나눔)

‘온기 더하기’ 연탄 나눔 활동은 겨울철에 겨울철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자원봉사입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물리적인 온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정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더 많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탄나눔



재능중학교 -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 노동자의 길



인하대학교 학생 사회봉사단

기후위기대응 캠페인 (바다의 시작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와 인하대학교 학생사회봉사단 '인하랑'과 협력하여 동인천역 북부광장에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바다의 시작, 우리가 그리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하수도에 버려지는 담배꽂초로 인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미술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원봉사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제는 각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 개최하고,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 캠페인 활동과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구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이루고,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함께하는 힘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세상에 없는 모두가 꿈꾸는 도시

오병규 창영종합사회복지관장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세상에 없는 모두가 꿈꾸는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



제6회 동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언제부터인지 마을 골목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창영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초 사립초등학교인 영화초등학교와 3.1운동 발상지이자 인천 최초 국립초등학교인 창영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며 '배다리' 하면 평일이고 주말이고 참고서 등 책을 사기 위해 학생들이 즐비하던 책 골목이 있는 곳입니다.

창영동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철길 앞 꿀꿀이죽 골목과 달고나 가판대, 영화 문구사와 또와분식, 창영당 앞을 거닐던 거리와 함께 놀던 번데기 집 아들, 어묵 공장 딸, 배다리 양조장 아들 그리고 전 배다리 솔가게 아들!!



아동청소년분과 특화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체험부스 운영

운동장에 모여 공놀이하며 뛰어놀던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지, 오랜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마을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중장비 소리와 함께 오랜 기억이 먼지처럼 피어오릅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지역자원을 통한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인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구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구성한 지역 단위의 협의체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공식적인 협의체로 시·군·구 단위와 읍·면·동 단위에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보건의료분과 특화사업 '동구 치매극복의 날' 홍보부스 운영



지역복지분과 특화사업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용 제품 나눔'



대표협의체 회의 운영

제공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연계 · 협력을 통해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체계를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 · 면 · 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 조직 기관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성격 및 기능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사회복지위원회(05.7.31.이전)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15.6.30.이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15.7.1.이후)로 불렸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은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 복지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 확대와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더 나아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범주를 확대된 것은 큰 기능의 변화입니다.

인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를 꿈꾸기 위해 주민들의 촘촘한 행복권을 구현하며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연계 · 협력으로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통해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의 지역사회 보호 체계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7개 실무분과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및 동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 컨퍼런스 및 힐링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동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시행하며 분과별 거리 홍보 및 부스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관계망 구성,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문화 체험, 영양죽 서비스, 아이들을 위한 아이 방 만들기 사업, 모두가 행복한 합동 생신 잔치,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아동 친화 사업과 방과 후 신체활동 프로그램, 계절 음식 나눔 사업 등 연령별, 지역 특성별 맞춤 사업을 개발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능대 사회복지학과 · 동문화 · 동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동구 트리오 멘토링을 통해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 복지 활동 창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트 고액 기부자 이승기 변호사의 후원에 따른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정 기탁으로 사업 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동구지역사회협의체는 제물포구 시대에 맞춰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7개 실무분과 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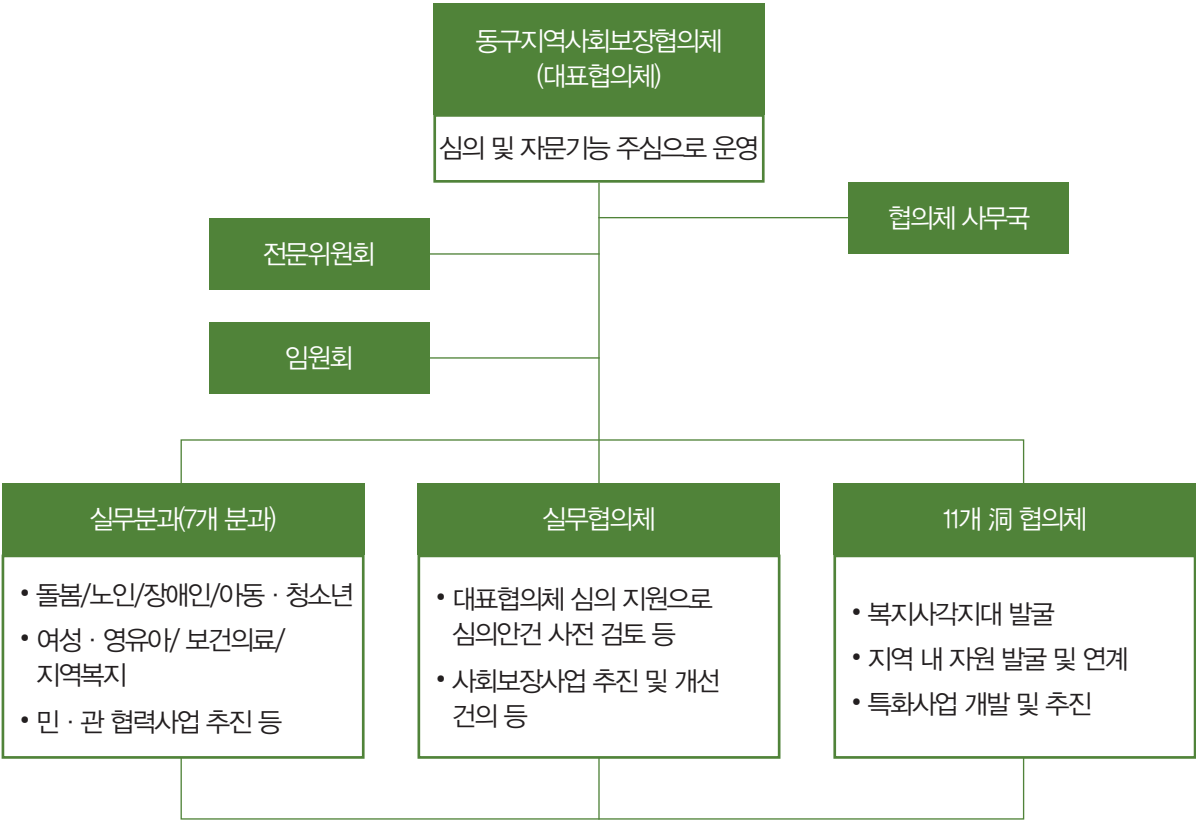


동구트리오멘토링 사업 참여 기관별 성과보고



동구트리오멘토링 사업 성과보고 2024년 재능 캠프톤디자인 성과전시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체계]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

‘여기는 인천항’의 단골 소재는 동구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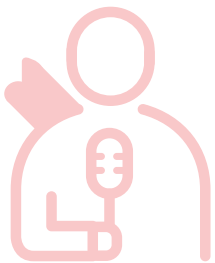
유동현 전, 인천시립박물관장



“어디선가 울리는 우렁찬 뱃고동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바람에 실려 오는 짭짤한 갯내음을 맡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 경인방송은 바다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와 거의 접하고 있는 방송국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특별하고 아주 드문, 여기 인천 학익동에 자리 잡은 경인방송뿐입니다. 그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항, 유동현입니다’ 저는 새롭게 진행을 맡은 유동현입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품고 있지만 인천은 누가 뭐래도 바다 도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의 바다와 섬 그리고 항구가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인천항, 유동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출항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진행자 마이크 앞에서 한 첫 방송의 오프닝 멘트다. ‘여기는 인천항 유동현입니다’는 크게 세 코너로 구성해 진행한다. 먼저 ‘백 투 더 인천, 그때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인천의 과거로 잠시 여행해보는 시간이다. 약 한 세기 전, 그러니까 100년에서 120년 정도의 시간, 그때 그곳으로 가보는 시간 여행으로 당시 우리 인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살펴본다. 인천 역사 연표를 참조해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준다.

또 다른 코너 ‘김용구 박사와 함께하는 맛있는 인천 섬 이야기’는 인천시 섬 발전 자문위원이며 ‘맛있는 인천 섬 이야기’의 저자인 섬 전문가 김용구 박사가 고정 게스트로 출연해 인천 168개 섬의 신비로우면서 흥미로운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여기는 인천항’의 대표 코너는 뭐니 뭐니 해도 ‘다시 펼쳐 보는 인천 바다 노트’다. 인천의 바다와 섬 그리고 항구는 많은 사연을 품고 있다. 해변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깔려 있다. 필자가 그동안 인천 바다와 섬 그리고 항구의 사연을 톼툼이 수집하고 꼬박꼬박 기록했던 ‘인천 바다 노트’를 펼쳐서 인천 바다와 관련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씩 소개한다.

6월 1일 첫 방송에서는 우리 동구의 유일한 섬 물치도로 스타트를 끊었다. 동구 출신인 필자는 이왕이면 동구에 대한 이야기로 첫 방송을 열고 싶었다. 그날 ‘물치도(작약도) 보물찾기 소동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일제가 패망하자 어느 일본인이 물치도에 3억 환어치의 금괴(현 시가로 하면 수 천 억 정도)를 묻어 놓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1956년 이 첩보를 접한 군 수사기관에서 섬 곳곳을 파헤쳤는데 보물을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 중에 이런 멘트를 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일본인이 그 섬에 실제로 금괴를 묻었을까. 그리고 당시 정말 공병대는 발굴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발굴하고도 쉬쉬하지 않았을까요. 요즘의 최첨단 장비로 쉽게 발견할 수 있을텐데 아직도 그 금괴는 섬에 그대로 묻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그 섬의 주인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 그 보물을 찾았지만 입을 꼭 다물었던 게 아닐까요...그 섬만이 그 미스터리를 알고 있겠죠. 혹시 보물 캐러 이번 주말에 물치도로 건너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곳은 현재 주인 있는 무인도입니다. 못갑니다. 가는 배도 없습니다. 그냥 미스터리로 남겨 두시지요.”



이후 이 코너에서는 동구 바다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몇 차례 더 소개했다. 7월 13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 만석동 묘도해수욕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8월 10일에는 송현동 수도국산 일명 똥고개 언덕을 넘고 다시 송림동 혈떡고개를 넘어서 갔던 염전(주안 8구 염전)의 이야기로 옛 추억을 되새겨 봤다. 2주 후인 8월 24일에는 화수부두의 얼음 공장 이야기로 잠시나마 북 중 더위를 식혀 봤다.

연이어 8월 31일에는 만석동에 있던 대성목재의 저목장(貯木場) 추억을 소환했고 9월 14일과 21일에는 연달아 '우리들의 세느강, 수문통의 추억'으로 시간 여행을 다녀왔다. 10월 26일 굴의 계절을 맞아 만석동 굴까지 작업장 '굴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11월 16일 방송에서는 며칠 전 동구 의회 주최로 '물치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정책토론회 연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물치도에 대한 옛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동구 바다를 소재 삼아 '다시 펼쳐 보는 인천 바다 노트'를 진행했다. 동구 바다가 없었으면 이 코너를 어떻게 끌어갔을까 할 정도다.

우리 속담에 '열길 물길 속은 알아도 사람 한길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구 표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속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

그 속을 알아보기 위해 11월 둘째 주에는 40년간 바다를 연구한 전동철 박사를 스튜디오로 초대해 해양 특집 방송으로 진행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 탱크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본부장, 책임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오직 바다만을 연구해 왔다.

전 박사는 만석동 팽이부리 출신이다. 어렸을 적 만석부두에 자주 나가 망둥이 낚시를 하면서 바다를 물끄러미 보며 인어에 대한 환상을 꿈꿨다고 한다. 그 영향으로 그는 서울대학교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해양물리학과 해양공학으로 각각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재직하며 세계 바다를 누볐다. 특히 북서태평양 해류순환 (포세이돈 프로젝트) 연구 등 조석, 조류 연구의 권위자다. 만석동의 바다, 그리고 그 속의 인어가 가 그를 키운 것이다.

필자 또한 어렸을 적 화수부두와 주안염전에서 짠 내음 맡으며 놀았기 때문에 경인방송 '여기는 인천항, 유동현입니다'의 진행을 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두루두루 바다가 사람을 키운다.

HWADOJINCULTURE



문화원 포커스

‘2024 화도진문화탐방’, 파주 일대를 돌아보고

우리 동네, 우리 동구 이야기

인천광역시 동구

‘2024 화도진문화탐방’

파주일대를 돌아보고

최주혜 같이가치심리연구소 소장

‘2024 화도진문화탐방’으로 첫 방문한 곳은
파주 일대에 위치해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었다.

나들이 하기 좋은, 조금은 덥지만 드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곤돌라 체험,
소원리본 만들기, 평화 랜드 등 드넓은 공원은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경기 북부 파주, 멀게만 느껴졌는데 화도진문화원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문화탐방으로 목요일 이른 아침
출발하여 찾아가니 화도진문화원에서 1시간 40분 거리로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진다.

3만 여평의 공원은 가족여행으로도 갈 만한 곳으로
평화롭고 걷기 좋은 공원이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 밖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까지 가득하여 파주는
평화가 그리워지면 찾아보기 좋은 곳이었다.





1. 파주 평화누리공원(경기도 파주 문산읍 임진각로 148-53)

임진각 관광단지 안에 새천년을 맞아 인류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며 만든 평화의 종, 한국전쟁 중에 피폭 탈선된 후 반세기 넘게 비무장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남북분단의 상징물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문화재 제78호),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철교의 형태를 재현한 독대다리는 통제구역내 임진강 경관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

1963년 한국 전쟁 포로로 12,773명의 교환을 위해 가설된 자유의 다리(경기도지정기념물 제162호)는 당시 포로들은 차량으로 경의선 철교까지 온 후 걸어서 자유의 다리를 건넜다고 한다. 그리고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설날과 추석등 가족이 보고 싶을 때에 고향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이 곳,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을 그리워한 실향민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는 망배단은 지금은 실향민보다 탈북민이 더 많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그 외 통일기원돌무지, 평화누리공원,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등 파주는 역사와 문화의 나들이로 최고의 장소로 추천한다.

2. 임진각 평화 곤돌라 체험

오전 곤돌라 이용을 하여 오른 DMZ생태관광지원센터는 이른 아침 풍경이 오토이 평화롭고 한적하여 조용히 걷기 좋았다. 오후 12시가 다가오니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 관광객으로 북적거렸다. 그들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분단의 아픔과 민족 간의 그리움을 느끼는 듯 사뭇 경건한 태도와 표정으로 이곳에 임하여 투어를 하였다. 이를 함께하듯 바람의 언덕은 임진각 상징과도 같은 바람개비가 저 멀리 반겨주었다.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을 연결하는 국내최초의 곤돌라로 하부정류장이 있는 임진각 주차장에서 임진강을 넘어 캠프 그리브스의 상부 정류장까지 왕복 1.7km를 오간다. 동행한 화도진 이사 중 1인은 과거 이곳에서 군복무를 했었다고 한다. 그때를 회상하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건디기 힘들었을거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평화를 지키기위한 당시의 군인들의 마음 가짐을 살짝 엿볼수 있어 좋았다.

3. 임진각

지금은 공사중인 메인 건축물 임진각은 남북 공동성명 발표 직후 실향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로 각종 편의시설이 있으며 옥상의 전망대에서는 민간인 통제구역을 조망할 수 있다. 넓디 넓은 벌판을 지나 눈 앞에 펼쳐진 북한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곳을 바라보며 문득 전신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도 날씨가 좋고 가을 하늘이 높는데 한 사람도 길을 거니는 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간 내가 느낀 평화는 가짜의 평화임을 알수 있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이 임진각은 축제의 분위기 었을 것이고 북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삼엄함이 극도에 치솟은 살벌한 분위기의 현상이었을 것이다.

이 곳 임진각은 우리나라의 분단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다.

4. 새천년의 장

파주공원 곳곳에는 각종 다양한 조형물이 많다.

다양한 조형물의 공통점은 통일을 향한 나지막하고 강렬한 호소를 하는 상징하는 작품들이라는 것이다. 나는 자연의 휴식처 공간으로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쟁의 비극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 이곳에서 전쟁의 아픈 흔적을 살펴보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다.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곳은 2005년 세계 평화축전 계기로 만들어진 세천년의 장은 과거를 뜻하는 하단부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상단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계 평화와 민주통일을 염원하며 세운 임진각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다녀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정원과 같다.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가꿀 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도 거대한 관계의 연속이다. 그리고 과거의 평화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과거의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인 현대의 사람들과도 관계이다 관계는 정원과 같아서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가꿀 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평화의 그 날이 우리와 머물 날을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가꾸어야 할 것이다.

유익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파주일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준 화도진문화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구비구비 동구스토리 - 걸어서 동구 속으로 : 우리 동네 알아보기

우리 동네, 우리 동구 이야기

임해승 화도진문화원 사원

“

2024년 구비구비 동구스토리 2차 프로그램은 3회의 흥미로운 답사와 좌담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답사에서 배운 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며, 좌담회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총 10명의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동구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

곽승민: 1차, 2차, 3차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처음 인천에 이사 왔을 때 유튜브를 통해 인천을 알아보던 중 유동현 관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관장님과 함께한 역사 탐방은 매우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특히 나무와 샘 카페의 외관과 분위기가 인상 깊었고, 두 번째 코스에서는 구불구불한 길과 염소 할아버지 집, 시장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빨래터 카페는 옛 모습을 잘 보존한 모습이 좋았어요. 이런 아름다움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많은 사람과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경희: 저는 이번 답사에서 둘째 날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셋째 날 답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배다리 주변을 좋아해서 자주 갔었는데, 이번에 함께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스페이스 빔 2층의 새로운 공간과 1층에 한옥 처마가 들어온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자주 갔던 곳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닫고, 앞으로는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김순옥: 화도진문화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도관 일대 골목은 처음 가봤습니다. 그곳을 다른 사람에게 안내하려면 잘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동일방직에서는 여공들이 힘든 상황에서 탈출을 꿈꾸며 벽에서 뛰어내린 사건을 들었고, 건물 옥상에서 본 넓은 전망이 인상 깊었습니다. 유동현 관장님 덕분에 알려지지 않은 곳을 구석구석 알게 되어 좋은 기회였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겠습니다.



정원하: 인천 시민이 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 문화원에 자주 가서 교류하고 자료를 찾곤 합니다. 특히 화도진문화원에서 유동현 관장님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현재 만석동을 연구하고 있으며, 만석동이 황해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번 답사에서 보고 싶었던 곳을 보고, 제 연구에 필요한 보완점을 찾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미정: 구비구비 동구스토리는 이번이 세 번째 참여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 배성수 부장님의 강의나 이전에 인천 영화에 대해 강의하신 윤기형 감독님, 동구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신 고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듣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를 넘어서 매우 유익했고,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유동현 관장님 사인을 받으려고 책을 가지고 오려 했지만 잊어버려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다음 강의에 또 신청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옥희: 저는 제1세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 자주 느끼는 점은 많은 것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빌라 전망대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동안 있었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런 변화들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관장님처럼 이 동네에서 직접 살아본 분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지만, 다른 해설자들은 지식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자주 놀던 곳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동네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동네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온 삶은 치열했다는 점을 더 많이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순: 미디어에서 관장님을 보고 계속 영상을 따라 보다가, 여기서 실제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뻐했습니다. 구비구비 동구스토리를 참여하면서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사람 사는 모습이 비슷하고, 이런 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살라고 하면 내가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보존하기 위해 영화 세트장처럼 만들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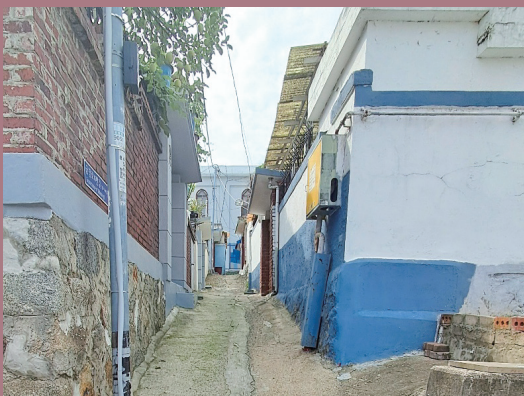


보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는 기분으로 걸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은경: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 이 말을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분이어서 모든 강의와 답사 그리고 함께하신 분들 다 너무 감사했고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많이 배워서 저를 많이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희: 사무실이 남동공단에 있어 그때부터 남동공단 답사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시립박물관이나 성당, 차이나타운 중심으로 답사를 했었는데, 동구 지역은 잘 몰랐습니다. 작년과 올해 동구 골목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전도관이 없어질 때 그곳을 사진 찍으러 갔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과 작은 다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 다시 갔더니 완전히 변해 있더라고요. 창영동 쪽도 자주 가던 곳이라 인상 깊었고, 최근 미국에서 온 동서와 함께 그곳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동서가 어린 시절 공부방이었던 장소를 보고 감동하여 떠나지 못했어요. 즐거운 세 번의 강의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자: 본래 고향은 강원도이고, 어린 시절부터 부평에서 자랐습니다. 2000년에 부천으로 이사 가서 2015년까지 살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동인천이 변화해서 그 지역만 자주 다녔습니다. 이번 탐방은 처음 해본 경험이었고, 많은 새로운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거리를 지나칠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하지만 개발 때문에 많은 것이 사라질 것이라 아쉬움도 컸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복잡한 감정이 생기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탐방을 이끌어주신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동현: 사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인천 관련 방송에 참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동구에 대한 애정 때문입니다. 동구는 인천의 형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연을 할 때마다 동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부처산고개와 활터고개 같은 동네의 고개들 이야기가 바로 그렇죠. 부처산고개는 원래 부채산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곳엔 일본식 불교 성지 순례의 흔적도 남아있어요. 또 활터고개는 원래 혈떡고개였는데, 주민들이 이걸 활터고개로 바꾼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사라진 동네들 잊혀가는 지명들을 되살리려는 거죠. 향토사적 자료인 오래된 사진과 엽서를 통해서라도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걸 보며, 동구의 문화적 유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좌담회를 통해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답사에서 얻은 역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을 함께 나누었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구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 이들은 이제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구비구비 동구스토리는 단순한 답사를 넘어서 동구라는 공간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HWADOJINCULTURE



화도진문화원 이야기

화도진음악회

2024 역사문화프로그램

화도진 문화특강

배타고 동구바다 유람

제5회 배다리 헌(獻)책 축제

찾아가는 전통문화학교

화도진문화탐방

제35회 화도진축제 주관

동구 기록화 사업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목(木)표를 향해'

2024 동구바다 그리기 대회

요가베어와 함께하는 #뜨개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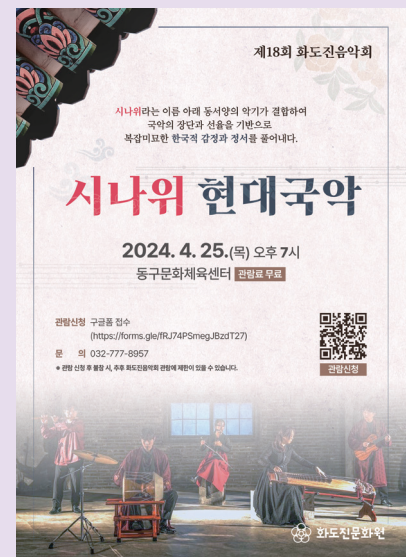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있는 동구 탐방길

화도진음악회

화도진음악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선보이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 고품격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문화적 향유를 누리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4월 25일 제18회 화도진 음악회

‘시나위’라는 이름 아래 동서양의 악기가 조화를 이루며, 국악의 장단과 선율을 기반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한국적 감정과 정서를 현대 음악 장르로 풀어낸 시나위 현대 국악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거문고, 대금, 해금, 장구 등 한국 전통 악기로 동시대의 현대 음악을 재해석한 멋진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진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며, 국악의 깊이와 현대 음악의 다양성을 느끼는 공연을 선보였다.



● 7월 11일 제19회 화도진 음악회

국악 그룹 락드림과 샌드아트 채승웅, 그리고 무용수 이세희가 함께한 이 공연은 ‘모래판’ 위에서 ‘우리소리’와 어우러지는 모래알들로 가득 차, 관객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였다. 단순한 콘서트 형식을 넘어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문화의 느낌을 공유하고 삶의 활력과 행복을 함께 느끼며 예술 활동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고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며 더위를 잊게 해주는 특별한 공연이었다.



● 10월 24일 제20회 화도진 음악회

혼성 5인조 보컬 그룹 ‘튤에이드’의 아카펠라 공연은 관객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악기나 반주 없이 오직 사람의 목소리로만 표현하는 음악으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연주가 가능하였다. 비트박스과 함께 가요, 팝, 재즈, 클래식,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대중적인 곡들을 선보였고, 특히 관객들이 직접 아카펠라 연주에 참여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힐링할 수 있었다.



● 12월 12일 제21회 화도진 음악회

‘인드럼’ 퓨전 음악 퍼포먼스는 다양한 음악 장르와 춤을 결합하여 현대적이고 화려하면서도 누구나 즐길 수 공연으로,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는 이 시대에 발맞춰 드럼 퍼포먼스, 전자 바이올린, 비트박스, 무용 등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인드럼의 현대적이고 화려한 공연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안겼으며, 2024년을 마무리하며 의미 있는 공연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4 역사문화프로그램 '구비구비(口碑口碑) 동구스토리'

2024 **구비구비** 동구스토리 **수강생 모집**

생활 속의 추억: 동구 생활사 알아보기

기간 2024. 5. 9.(목) ~ 5. 30.(목) **장소** 화도진문화원, 동구 일대 **대상** 지역주민 30명 내외 **문의** 032 - 212 - 8959

강의일정	강의내용	강사
5. 9.(목) 10:00~12:00	생활 속의 여가: 극장	윤기형(영화감독)
5. 16.(목) 10:00~12:00	생활 속의 여가: 음식	고영(음식 문헌 연구가)
5. 23.(목) 10:00~12:00	생활의 중심: 시장	백성수(민천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5. 30.(목) 10:00~12:00	동구 생활사 탐방	백성수(민천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신청 QR코드

화도진문화원

2024 **구비구비** 동구스토리 **수강생 모집**

걸어서 동구 속으로: 우리 동네 알아보기

기간 2024. 9. 4.(수) ~ 10. 2.(수) **대상** 지역주민 30명 내외 **신청방법** 네이버 폼 접수 **문의** 032 - 212 - 8959
<https://naver.me/DVJLW6>

강의일정	강의내용	강사	신청QR코드
24. 9. 4.(수) 10:00 ~ 12:00	만석동 - 화수동 일대 만석우체국 > 영화대 > 통일방직 > 화수시장	유동현 역학	
24. 9. 11.(수) 10:00 ~ 12:00	송탄동 - 학림동 일대 송탄진 목장 > 송탄한옥 > 수문동거리 > 병우물	· 민천시립박물관 · 관아마을 <여가> · 민천동 유물방 <다> · 관아마을	
24. 9. 25.(수) 10:00 ~ 12:00	송탄동 일대 도원역 > 스페이스 빌 > 송탄시장 > 현대문화사거리		
24. 10. 2.(수) 10:00 ~ 12:00	우리 동네 이야기: 소담 나누기		

화도진문화원

2024 역사문화프로그램 '구비구비(口碑口碑) 동구스토리'는 인천 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있게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생활 속의 추억: 동구 생활사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에서 윤기형 감독은 생활 속의 여가 활동으로서 극장과 영화에 대해 설명하며, 극장이 문화와 예술의 중요한 공간으로서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으며,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이였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생활속의 여가로 음식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영 선생님과





함께 밀가루와 서민들의 사리 추가 문화, 옛 조상들이 즐겨 먹던 음식, 그리고 현재 사라져가는 음식 문화에 대해 논의 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전통 음식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님이 인천 동구 공설시장의 변천사에 대해 강의하고 실제 탐방을 진행하였다. 지역 주민과 함께 인천 동구의 극장 및 음식 문화와 시장의 변천사를 깊이 있게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하반기에 진행된 2차 프로그램에서는 <걸어서 동구 속으로: 우리 동네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유동현 전 시립박물관장관장과 함께 진행되었다. 1차 답사는 만석, 화수동 일대, 2차 답사는 송현, 화평동 일대, 3차 답사는 송림동 일대를 둘러보고 마지막에는 골목골목을 탐방하며 느낌 점과 사진을 같이 공유하고 소감을 나누는 형식으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문화원에서는 내년에도 더욱 참신하고 새로운 주제로 참여자들에게 동구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화도진 문화특강



송헌1, 2동 복합청사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문화특강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소양을 제공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1회차에는 오페라 인문학자 박경준님을 초청하여 오페라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인문학적 의미에 대해 깊이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적인 설명 덕분에 참석자들은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2회차에는 개그맨 황기순님이 초청되어 유머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재치 있는 이야기와 유머는 참석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고, 문화적 소양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다.

3회차에는 신병주 교수님을 모시고 "조선의 왕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조선 시대의 왕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들의 삶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지식과 경험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식전 행사에 참여해 주신 가족센터 중국 자조 모임 '청음 팀'과 동구 하모니카 봉사단 '우리소리 재능 봉사단'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타고 동구바다 유람

동구의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배 타고 동구바다 유람'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올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매 회차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해설사의 역사 강의와 바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동구 가족 센터의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졌다. 참가자들은 동구의 섬 물치도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고, 물치도가 하루 빨리 개발되어 동구의 아름다운섬으로 주민 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에게 바다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제5회 배다리 헌(獻)책 축제

배다리 헌(獻)책 축제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로, 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책을 매개로 한 소통의 장이 되는 의미 있는 축제이다.

올해 화도진문화원과 함께하는 배다리 헌(獻)책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졌으며 도서 교환전, 배다리 탐험대(스탬프 찍기), 도전! 어린이 골든벨 등 흥미로운 활동들이 마련되어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아벨서점 시다락방에서는 조연수 시인의 ‘책 속의 즐거움 찾기’ 강연이 진행되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독서법을 소개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전통의 책 만들기 방법을 활용한 한지책 만들기, 복합문화공간 창영당에서 동화구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화 이야기 및 이야기 인형 만들기, 미래 직업 탐색과 팝업북 만들기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동구 자원봉사 센터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풍선 아트 체험, 배다리 철교에서는 마술 버스킹 공연이 펼쳐졌으며, 동성 한의원에서는 유사랑 화백의 캐이커처 그려주기, 인천 문화양조장에서는 임희승 타로이스트의 인생 상담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과 문화적 연대감을 높이고 책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루가 되었다.



찾아가는 전통문화학교

찾아가는 전통문화 학교는 초등학생들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을 통해 올해에는 송림 · 서림 · 창영 · 송헌 · 서흥 초등학교 5개 학교, 35학급 82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식 만들기, 제기 만들기, 칠교 놀이 같은 다양한 전통 놀이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다례 교실에서는 전통차 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효와 예절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인천 지역의 최초 공립초등학교이자 3·1운동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의미있는 인천 창영 초등학교를 종이접기 키트로 모형을 만들어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찾아가는 전통문화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도진문화탐방

2024년 9월 26일(목), 화도진 문화 탐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이 탐방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과 문화원 회원들이 함께 문화 유적을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올해는 평화누리 공원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에게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며, 산머루

농원에서 진행한 와이너리 체험은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와인 제조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와인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 탐방이 되었다.

이번 문화 탐방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내년에는 다양한 문화 탐방을 준비하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제35회 화도진축제 주관

인천의 대표적인 군영 축제인 화도진 축제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문화원 주관으로 화도진 공원에서 전통 놀이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문화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 외 트롤리버스 운행, 구민 노래자랑, 어린이 댄스 경연대회, 청소년 프린지 페스티벌 등 주민 참여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어, 제35회 화도진 축제가 더욱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뜻 깊은 축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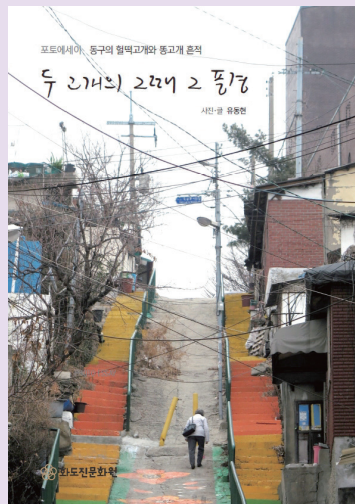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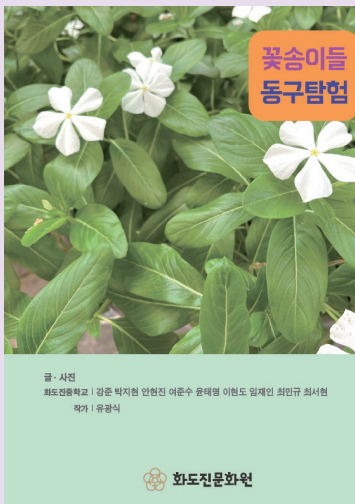


동구 기록화 사업

올해 지방 문화원 특성화 사업으로 동구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관내 중학교인 화도진중학교 학생들이 동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내는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관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꽃송이들 동구탐험’이라는 제목의 포토 에세이집이 발간되었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진전과 의미 있는 출판 기념회도 열려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번 기록화 사업은 학생들에게 동구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유동현 前 인천시립박물관장님이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동구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는 포토 에세이를 제작했다. 이 포토 에세이는 동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변화하는 풍경을 시각적으로 담아내어 지역 주민들과 후세대에게 동구의 소중한 기억을 남기는 데 기여했다. 재개발로 인해 잃어버릴 수 있는 가치들을 다시 조명하고, 이를 통해 동구의 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목(木)'표를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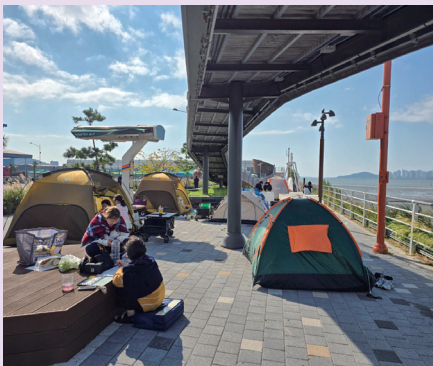
인천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신중년 생애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50~69세)을 대상으로 소통과 목공 만들기를 통해 삶의 즐거움 제공하는 의미있는 기회였다.

작년에 이어 2년 차로 배다리 행복 공작소에서 진행된 목공 수업은 참여자들에게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들과 함께 공동 작품을 작업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각자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목공 수업을 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소통하며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 동구바다 그리기 대회



인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구의 아름다운 바다를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대회가 만석·화수 해안 산책로에서 공모전 형식이 아닌 현장 대회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해안의 경치와 자연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지역의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술적 감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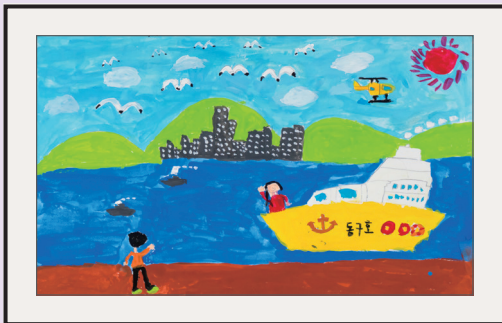
동구의 아름다운 바다를 널리 알리고 지역 사회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바다영화관 - 이나



가족과 관찰한 동구의 기을 바다색 - 조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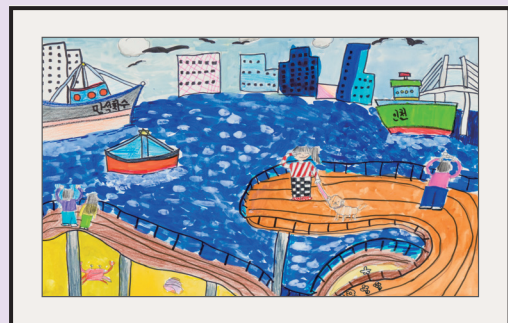
아름다운 동구의 바다 - 이가온



아름다운 동구 바다 - 신소예



거북선 - 정지훈



우리들의 멋진 화수부두 - 한가희



동구 바다의 하루 - 오다은



바닷속 풍경 - 김도원

요가베어와 함께하는 #뜨개명상

인천 동구청 교육지원과와 함께 진행한 평생 학습 연계 프로그램인 어깨동무 교실 “요가베어와 함께하는 #뜨개명상”이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오후 7시~9시까지 총 14회를 걸쳐 진행되었으며, 퇴근 후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있는 동구 탐방길

인천의 원도심 동구는 깊은 역사와 주민들의 애환이 어우러진 특별한 지역이다.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있는 동구 탐방길'은 동구의 매력과 따뜻한 삶의 향수를 체험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으로 동구를 걷고 싶은 10인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해설사와 함께 '노동자의 길'과 '예술로 동구길'을 탐방하며 동구의 숨겨진 이야기와 매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참여자들이 동구의 따뜻한 향수를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



만석부두의 석양이 황금빛으로 물들다

최용백 한국환경사진연구소 소장



인천 동구는 만석부두와 함께 성장해 온 도시이다. 산업화를 이끈 현대 공장들이 늘어서 있는 곳을 지나 골목길을 들어가면 마법처럼 부두가 있는 바다가 나온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노을은 바다와 하늘을 다 태워버릴 듯이 붉고 또 황금빛이다. 만석부두에서 만나는 황금 노을은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은빛 윤슬은 인천 바다의 아름다운 색깔을 감동적으로 펼쳐보인다. 썰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만석부두에서는 하루 종일 바닷물을 볼 수 있다.



만석부두에서는 거대한 인천항 북항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오고, 선박과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대형 갠트리 크레인,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 인천제철, 목재 공장, 물치도, 영종도 구읍나루터, 인천국제공항의 이착륙하는 비행기, 인천대교, 강화도 마니산, 청라국제도시, 계양산, 중구봉,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 바다 위로 오가는 선박, 선착장의 낚시배와 어선들을 바라볼 수 있다.

한적한 만석부두에서 황금빛 노을을 보면서 바다 냄새를 맡는 시간은 우리 삶에 새로운 추억을 하나 더 쌓아가는 일이다.

화도진문화원

회 원 가 입 안 내

화도진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어주세요!

화도진문화원은 동구 지역의 향토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활동, 문화 교류, 그리고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발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동구 지역 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화도진문화원 회원의 특별한 혜택

- 본원 발간 도서와 간행물 발송
- 각종 공연, 전시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우선 초청
- 회원과 회원 가족을 위한 각종 문화탐방 프로그램 우선 참여
- 문화강좌 및 발표, 전시회 우선 참여
- 기타 본원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 참여

화도진문화원 회원의 의무와 권리

- 회비납부
- 총회참여를 통한 문화원운영에 참여

회원가입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 가입후 연회비 입금

연 회 비 : 20,000원 이상 (연1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958442 / 예금주 : 화도진문화원

문의전화	032) 777-8960	팩스	032) 777-8958
주소	(우22551)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22번길 2 (송현 1, 2동 복합청사 6층)		



백승기, 배다리 헌책방거리-1
(아르쉬용지위에 먹과 수채, 38X28cm, 2023)



화도진문화원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22번길 2 T. 032,777,8957

<http://www.hdjcc.or.kr>